



함께 있어서 행복한데 같이 살아서 불편하다

반려견과 동거,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다. 강아지·고양이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비행기를 타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하지만 이를 불쾌해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털 알레르기, 물림 사고, 질병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이는 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 반려견과 같은 공간에서 동거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서 개 소음을 견디다 못한 40대 남성이 이웃집에 쳐들어가 주먹다툼을 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개소음을 항의하던 이웃 주민이 견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개로 인한 증간소음을 뜻하는 '증견(犬)소음'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최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웃집 개가 밤낮없이 짖는 소리,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2016년 1503건에서 2018년 1617건으로 증가했다.

소음 해결하려면 민법으로 접근해야 어린이 있으면 배설물 처리 주의 반려견, 사람처럼 정신질환 앓아

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해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예방접종하면 아기와 키워도 안전

반려견에 대한 가족 구성원과의 의견충돌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를테면 결혼·임신·출산을 계획할 때 반려견을 계속 키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입장차 등이다. 임신 7개월 차인 주부 이영선(33)씨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을 친정으로 보냈다. 남편이 애기와 강아지를 한 공간에서 함께 키우는 일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혹시 애기를 물까봐, 병균을 옮길까봐, 알레르기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서유빈 교수는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원인이 크므로 반려견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려견 예방접종을 마치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거의 없다. 나 또한 반려견과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려견의 대변에는 사람에게 발열·구토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캄필로박터균·살모넬라균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설물

이 보이는 즉시 치우고 배설물이 있던 자리는 식초와 세제로 말끔히 닦아 아기의 손·몸에 균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엔 사후처리를 잘해주면 된다.

서 교수는 "개에게 물린 부위를 우선 깨끗한 물에 씻어내야 한다"며 "크게 변화가 없다면 안심해도 되지만 붓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아프다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에게서 '키프노사이토파가' 균에 감염되면 생명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선 반려견과 입맞춤을 하거나 살짝 물린 다음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를 잘라낸 사건이 있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이 병원균은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이며 감염 시 3-5일 내로 증상이 나타나고, 10명 중 3명은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분석했다.

혼자 있는 반려견 우울증?

준비되지 않은 이들의 동거는 반려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홀로 집을 지키며 받는 스트레스다. 개들은 대체로 주인 없이 집

지키는 걸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려견이 오랜 시간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1인 가구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4시간52분인데 1인 가구의 경우엔 6시간50분으로 두 시간가량 더 길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개는 우울·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혜원 바우하우스 메디컬센터 원장은 "반려견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 즉 싫어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욕구가 없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심하면 10-12시간 동안 식사·배변을 하지 않고 한 자리에만 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동물병원에서 털?타액?대변 등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를 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노력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며 "방문·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하며 주인이 나가도 금방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증견소음 스트레스 호소 사례 늘어
평화로운 동거를 위해 중재 창구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규제가 어렵다.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 소음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시가 증견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를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어 8개월 만에 중단했다. 현재는 명확한 피해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 민법으로 해결하거나 아파트에 사는 경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